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광둥외어외무대학교	기숙사비	48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광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할납부(<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9.09.04 - 2019.12.31	기타비용	보험비 400위안/한 학기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남	학 년	4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1. 16.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간단한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초1~4, 중1~4, 고 반으로 배정됩니다. 배정된 이후 오티 기간 동안 수업을 들어 보고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으면 자유롭게 반을 옮길 수 있습니다. 초급반의 수업은 말하기, 듣기, 중합, 중급반부터 듣기, 말하기, 쓰기, 중합, 독해를 들었습니다.

초급반의 경우 월~목요일에만 수업이 있고 중급반부터는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오전수업 2번, 오후수업 2번과 같이 오전 오후가 번갈아 가며 있어 시간표 숙지가 필요합니다. 초급반 오전수업의 경우 8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10분에 끝나고 오후수업이면 1시에 시작해서 4시 40분에 끝이 납니다.

교수님마다 수업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희 반 교수님들이 모두 해외에서 중국어를 가르친 경험들이 있어서 수업시간에 중국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르는 단어의 의미나 본문의 내용 등 이해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능숙한 영어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또한 일일이 학생들을 읽거나 발표를 시키고 중국어를 가르치시는데 열의가 넘치셔서 수업마다 열정적인 수업으로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과제는 중합과 말하기 수업이 매일 있었습니다. 중합의 경우 본문 단어 시험, 본문 뒤의 단락 읽어오기, 다음 과의 예습이 있었고 말하기 수업은 마찬가지로 단어 시험, 다음과 예습,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예문 만들기, 특정 주제에 대한 작문해오기가 있었습니다.

시험은 중간, 기말시험이 있으면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을 봅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학교는 바이윈구에 위치해 있고 공항에서 40분 정도, 번화가인 티엔허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재개발을 시작해서 주변에 놀만 한 것들이 없습니다. 또한 몇 개를 제외한 음식점도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의 학생 식당을 이용하거나 와이마이를 이용해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밤12시가 되면 배달원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복문까지 나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그 전에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광저우는 교통편이 잘돼 있어 한인타운인 원장루, 번화가인 티엔허까지 한 번에 바로 가는 버스를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야 해서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 카페, 슈퍼, 빵집, 인쇄소 등이 있고 슈퍼에는 한국어학도가 있어서 그런지 한국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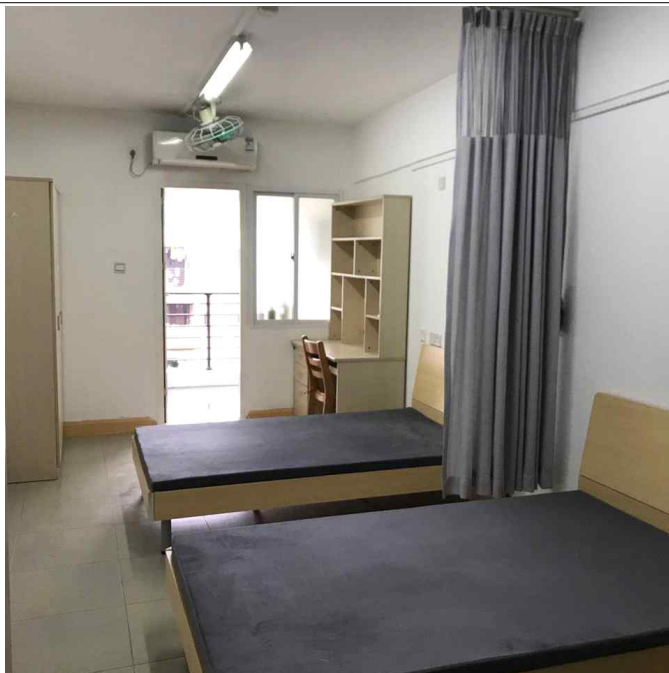
광저우 날씨는 상상 이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습함과 더움이 10월까지 지속 됩니다. 그렇기에 모기들이 너무 많아 모기장은 필수입니다. 12월 초까지 날씨가 더워서 반팔을 주로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12월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480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유학생 기숙사는 남녀가 같이 생활하는 16동과 여자만 사용하는 C동이 있습니다. 통금시간 등 규정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요사항	매주 화, 금 아침에 청소를 해주시는데 싫으면 방문에 청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붙여 놓으면 됩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16동의 경우 개강하지 전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1층은 4인실, 2층부터 5층까지 2인실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야 합니다. 자문인식을 통해 건물과 방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방 중간에는 커튼이 있어 각자의 공간을 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C동과 다르게 16동은 베란디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온수를 사용하려면 학생중에 온수를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온수 사용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나옵니다. 각자의 책상, 의자, 침대, 옷장,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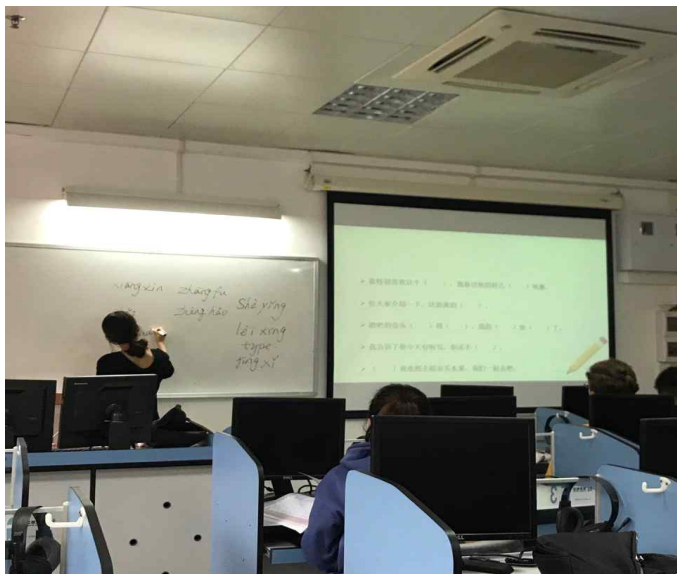
다. 이불, 베개 등 이외의 필요한 물건들은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벽면에 콘센트가 많아서 멀티탭이 불필요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싶으면 층마다 복도 끝에 주방과 세탁실이 같이 있어 이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일 불편했던 점은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 무조건 통신사를 리엔통으로 할 텐데 방 안에서 데이터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들어오면 무조건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해서 매번 귀찮았습니다. 또한 기숙사를 등록하고 와이파이가 되기까지 2~3일정도 걸려서 그동안 너무 심심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사진에 보이는 7교와 뒤에 있는 MBA 건물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컴퓨터가 있는 강의실에서 수업했는데 처음 열린 반의 개수에 비해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반을 새로 개설해 저기에서 수업을 틀었습니다. 7교 로비에 중국은행 ATM이 있습니다만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 보통 X2 비자를 받고 옵니다. 하지만 정문에 있는 중국은행은 X1 비지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후문에서 조금 걸어가면 나오는 공상은 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용돈을 받으면 공상은행까지 가서 입금하고 와야 해서 귀찮습니다.



학교 식당은 중 4곳이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곳은 제1식당과 2식당입니다. 두 식당 모두 2층으로 1층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을 골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층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방식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밖에서 먹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2식당 2층에 한식, 양식, 햄버거 등 다양한 음식을 팔아 자주 갔습니다. 나중에 와이마이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자주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1층 반찬 중에 생선튀김은 정말 비추입니다. 먹는 순간 내가 물고기가 된 듯한 비린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24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책을 대출하고 싶으면 1층의 무인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은 대운동장과 소운동장이 있는데 대운동장에서 저녁을 먹고 나온 많은 중국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다른 모습에 신기했습니다. 또한 대운동장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해서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중국 여행을 몇 번 다녔긴 했지만 다른 학교에 적어도 2명씩은 파견 갔기 때문에 광둥외어외무대학교에 혼자 파견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공항에 저만 마중 나온 것이 아닌 다른 한국 학생들도 마중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한국 학생들과 좋은 인연이 되어서 중강할 때까지 같이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반이 배정되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특정 나라나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들을 깨버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이 중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주로 중국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도 비로 용용해서 말해보기도 하고 해서 말하기와 듣기 실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간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학기가 끝났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광저우에 가자마자 날씨 때문에 힘들었던 것부터 눈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까지 모든 일이 저에게 많은 추억과 인생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기에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전부 쓰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 자비로 다음 학기를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계림, 운남성, 주하이, 선전, 마카오, 난징 등 기회가 되면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광저우에 와서 첫 달 주말마다 광저우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청광장에 가서 광저우 타워를 보거나 월수공원을 걷고 안에 있는 광저우박물관을 구경했습니다. 또, 한인타운인 원장루나 번화가인 티엔허에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일주일의 국경절로 인해 수업을 안 해서 계림과 운남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려면 미리 기차표 등을 예매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계림에 갈 때 자리가 없어서 2등석과 가격이 같은 입석으로 5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계림은 신서유기에 나온 적이 있어서 기대가 컸습니다. 직접 기본 계림은 기대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들은 신기하고 아름다웠고 장예모 감독의 인상유삼저는 무대의 스케일이 감탄할 정도로 컸습니다. 운남성 여행은 같이 간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침대기차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쿤밍에 도착해 석림을 구경하고 다시 저녁에 침대기차를 타고 리장에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도 중국 여행 중에 열몇 시간인 기차를 몇 번 타본 적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석림으로 가는 버스에서 오스트리아 친구를 만나 같이 구경하고 친구가 됩니다. 또, 리장에서는 우연히 게스트하우스에서 학교는 다르지만 광저우에서 교환학생 중인 한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는 광저우에 와서도 몇 번 만나서 놀기도 했습니다. 리장은 습하고 더운 광저우와 다르게 날씨가 추워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다시 가고 싶은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만년설이 녹아 물색이 옥색인 람월곡과 옥룡설산에 올라가서 고산병에 걸릴뻔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 X2비자를 받아오면 해외를 나가게 되는 순간 비자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개강 시에 해외를 2번 나갔다 올 수 있는 X2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 변경해 줍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2번의 엔트리카 있는 X2비자로 변경해서 마카오에 다녀왔습니다. 비용은 광저우남역에서 주하이역까지 가는 왕복 기차표만 있으면 돼서 매우 저렴했습니다. 또한 광저우에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주말에 마음만 있으면 손쉽게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물가가 중국에 비해 비쌌던 건 흠입니다. 주변의 불산, 선전 등 다른 지역도 광저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광저우에 교환학생을 온다면 당일치기로도 여행할 수 있으니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11월에 광저우에서 칸톤 페어라는 커다란 행사가 열리는데 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구경을 시켜줍니다. 매년 2번씩 개최된다고 들어서 다음 학기에 가는 분들도 가서 다양한 회사의 제품과 시식 등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간 친구들과 관심이 있는 분야만 구경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모자랐을 정도로 행사장의 규모가 너무 커서 하루 안에 구경하기란 무리

인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면 중국에 교환학생을 왔고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있음에도 중국 학생들과 만나거나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이나 중국어를 배우는 같은 반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져서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OT때 저는 이미 멀티 관광비자가 있어서 이걸로 중국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된다고 하여 관광비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후회했습니다. 일단 관광비자로 은행계좌를 만들어 주는 곳이 없어 X2비자가 나올 때까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일체를 사용하지 못했고 당시에는 여행을 가야 하는데 곧 국경절이라 X2비자를 신청하고 그전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비자를 바꿈으로 인해 주숙등록을 학교에서 거리가 좀 있는 경찰서까지 가서 또 해야 했습니다. 중국에 들어갈 때 무조건 학생비자로 들어갈 것을 추천합니다.